

## 벤처관련



### 중진공, 한국경영컨설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경영컨설팅협회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은 기술성과 미래성장성을

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미래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진공과 컨설팅협회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중진공은 ▲ 투자희망업체 발굴 및 추천 ▲ 중진공의 자금, 정보제공, 수출 및 마케팅, 연수 등의 지원사업 대한 참여기회 제공 ▲ 투자설명회 등 투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컨설팅협회는 투자금융 지원시스템인 iPlus Center 를 활용하여 ▲ 창투사 등 국내외 투자업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 투자유치와 관련한 교육과 전락세미나 지원 ▲ 기업별 전문 IR 자료 작성 지원 ▲ 투자유치 지원 전담 컨설턴트 등 중소기업 투자유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연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중진공은 협약체결을 통해 기술성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투자유치 애로를 해소하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더욱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그린오션 창출 위한 '관·연 협력' 시동

특허청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등 에너지 및 환경 유관기관들이 관·연(官·研)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확보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위 4개 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 토론회를 열어 기관별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올해 조선,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4개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녹색기술 관련 8개 기술분야에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암모니아 흡수 및 막분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대응하여 석탄청정 이용기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에너지자원,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저공해 자동차, 수처리 선진화, 폐자원 에너지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2008~2010년간 1,300~1,6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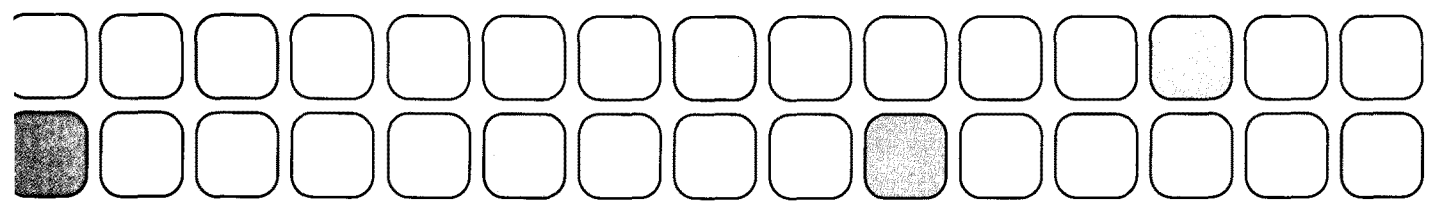
### 관세청,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등 Green Customs 대책 발표

관세청은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세관의 모습을 "Green Customs"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하는 한편, '국가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이동을 차단' 하는 것을 목표로 "Green Customs" 대책을 수립,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바이오 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 세관장이 보세 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 녹색제품의 수출입 지원 강화 ▲ "e-통관물류 체제" 구축 ▲ 'RFID' 기술을 세관행정예 적용, 모든 수출입화물의 반출입 과정을 일괄 자동 인식함으로써 화물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 세관 신고서나 확인절차가 없는 "RFID 기반 수출입화물 자동관리 체제" 구축 등이다.

또한 관세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 환경단체, 친환경 수출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Green Customs 위원회"를 운영, 녹색산업 육성 방안 마련 및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기보, 중소기업 현장으로 한걸음 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지원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현장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보의 정책 변화 내용은 '기술평기보증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 특례조치 시행' 과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 시행' 두 가지인데 '기술평기보증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 특례조치,



는 기업들이 신청한 운전자금 신청금액에 대해 심사를 통해 산출된 금액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보증만기연장 잠정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되며 기업들의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한 도래시 일부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즉시 지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보,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개발

기술보증기금은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인 KTRS - Startup(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Startup)을 개발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KTRS - Startup은 창업기업을 주 평가대상기업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창업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등급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 모형은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항목을 배제하고 순수 비재무항목만으로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측면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산출된 등급은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 뿐만 아니라 로짓모형에 의한 기술사업화 위험까지도 감안된 것이다. 모형의 적용대상은 창업 후 3년 이하의 기업과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 중 기보의 보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이 모형은 지난 4월부터 서강대와 공동으로 기술평가모형인 KTRS를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 KTRS

2005. 7월부터 시행중인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2006년 美 미국경영과학회의 에델만상 수상후보(Semi-Finalist) 선정, 2007년 국내특허 취득, 2008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해외특허 출원하는 등 KTRS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음.

### KISA, 네덜란드 브라이스회사와 IC칩 평가기술 분야 협력 체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www.kisa.or.kr)은 하드웨어 평가기관인 네덜란드의 브라이트사이트사(BrightSight, 공동대표 안 판터스, 안 디르크 아웃)와 IC칩 평가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이트사이트사는 네덜란드 국립연구소(TNO)로부터 독립하여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스마트카드, 전자지불 단말기 등에 대한 CC 평가, 그리고 스마트카드 보안 컨설팅 및 교육, 하드웨어 취약성 분석 및 평가 장비 개발 및 보급 등을 시행하는 세계적인 전문 평가기관이다.

앞으로 KISA는 브라이트사이트사와 하드웨어평가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드웨어 공동시험 및 평가 등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드판독기, 보안토큰 등 하드웨어 제품평가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태양광, 그린 에너지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들 대거 방한

영국의 세계적인 시장 분석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를 비롯해 미국의 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시장 조사 기관인 '럭스 리서치(Lux Research)'와 '윈터그린 리서치(Winter Green Research)'가 태양광을 비롯한 그린 에너지분야의 시장 동향과 정책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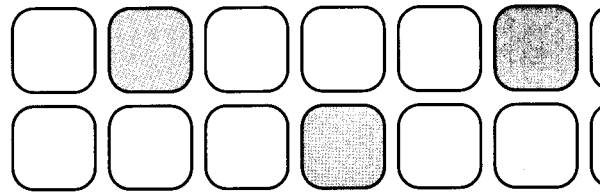
이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 신재생 에너지 세미나/컨퍼런스 전문 그룹인 아이티컨퍼런스(www.it-conference.net)가 12월 9일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태양광 · 신재생 산업 전망 컨퍼런스(Green Power Korea for 2009)'에서 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의 시장을 조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최근 동향을 발표하는 등 그린 글로벌 경제를 위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독일의 태양광산업 전문 리서치 업체인 포톤컨설팅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은 지난해 60메가와트(MW)에서 올해 155MW, 2009년 415MW에 이어 2010년에는 800MW에 달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7%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탄소 라벨링 국제동향 및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서 친환경 상품 진흥원이 발표한다. 이미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중이며 국내에서는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 상품을 친환경상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본 행사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이티컨퍼런스 홈페이지(www.it-conference.net; 02-3473-6369)에서 확인하면 된다.

# VD RADAR



## 연구원

### ETRI, 고(高)민감도 터치센서용 칩 개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주요 입력 기술로 터치기술이 부상하면서 외국계 기업에서 공급받던 터치센서 칩보다 민감도가 크게 향상된 고민감도 터치센

서용 칩이 개발되어 국산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TRI는 가전제품의 터치센서는 물론이고, 민감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의 신호처리를 위한 핵심 기술인 고감도 센서 신호처리 회로 기술을 활용한 『고민감도 터치센서용 칩』을 최근 개발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신호변조 기술(새로운 델타시그마 변조기술로서, 기존 방식보다 16배 향상된 고민감도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외부 노이즈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주로 고감도 인식이 중요시 되는 MP3P, PDA, 핸드폰, 내비게이션, PMP 등 용도의 터치센서에 적합하며, 고민감도 특성으로 인해 근거리에서 손가락을 터치스크린에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근접센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세계 터치센서 시장규모는 2011년에 210억달러(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ETRI는 기술 설명회, 기술 전시회를 통하여 국내외 시장에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기술관련 내용은 ETRI 차세대 HMEMS팀 실무담당자 이성식 선임연구원(042-860-5763)에게 문의하면 된다.

독성과학원, '의약품의 근육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 출원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여 고지혈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타틴계(statin) 약물 중, 특히 세리바스타틴 등의 경우는 황문근용해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스타틴계 약물의 근육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독성과학원 분자생물과에서는 2007년 독성유전체 연구사업으로 스타틴계 '의약품의 근육독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근육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진 세리바스타틴 및 프라바스타틴을 근육세포에 처리하여 수득한 RNA를 이용, DNA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으로 근육독성 특이적으로 발현양상이 변화되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유전자를 이

용 근육독성을 나타내는 의약품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유전자의 검증 및 다른 스타틴계 약물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하여 근육독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생체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계연, 탄소나노튜브 고순도 대량 분리기술 개발

국내연구진이 탄소나노튜브 분야의 오랜 난제에 속해 있던 금속 및 반도체 성분의 탄소나노튜브를 동시에 고순도 대량 분리하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한창수 박사팀이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인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주)탑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에 개발한 탄소나노튜브 분리기술은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수많은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속성 탄소나노튜브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Flexible Display 및 LCD용 도전성 투명필름, 도전성 복합재, 히터, X-ray소자, Field Emission Display, 반도체 배선, 배터리 전극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반도체 탄소나노튜브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전자소자, 나노라디오, 수소저장, 적외선소자, 각종 나노센서 등 탄소나노튜브 관련 전 산업분야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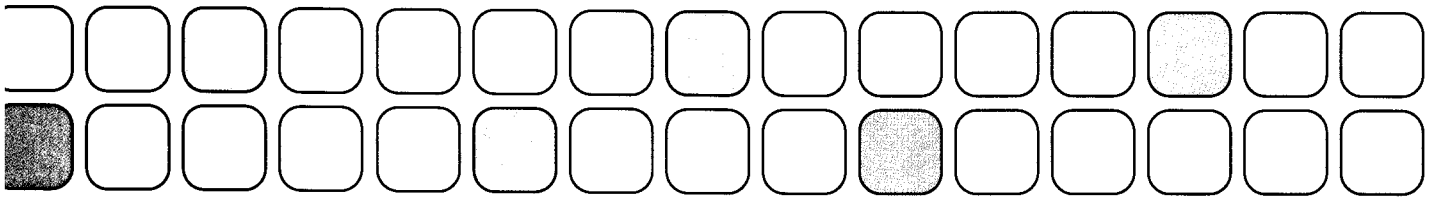
이 기술은 올 1월 (주)탑엔지니어링에 원천기술이 이전되었으며, 3건의 국내 특허 등록 및 국외(미국, 유럽, 일본 등)에 특허 출원중이다.

### KISA 황중연 원장, 29일 'IT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2009 IT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IT융합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황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IT융합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하고, 국민, 기업, 정부의 대처 방향을 제시했다.

### 표준연, 양자현상에 기초한 전기저항표준기 개발

극한의 정확도를 얻기 위한 국내 연구진의 노력이 최근 결실을 얻었다.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정광화) 기반표준본부 양자응용연구단 김



완성 박사는 저온전류비교기를 이용한 양자홀 저항표준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가 저항표준으로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인 10억분의 4의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해졌다.

전기저항은 전기분야 국가표준체계에서 전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단위이다.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에 유지하던 저항표준을 새롭게 개발된 양자홀저항표준으로 교체함으로써 저항측정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양자홀저항은 종류가 다른 두 반도체 접합의 경계면에 형성되는 전자들의 홀(Hall)저항이 극저온과 고 자기장에서 양자화 되는 현상이다. 이때 발생하는 불연속 지점을 찾아내고, 그 불연속 단계를 헤아려 정확한 저항 측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KRIS는 독자 개발한 양자홀저항표준기를 사용해 국제도량형국(BIPM)이 주관하는 국제비교(Key Comparison)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교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측정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표준기관에 저항표준 확립을 위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적조생물로부터 바이오 에탄올 추출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는 적조를 대량 포집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적조를 바다에서 회수, 에탄올 등으로 활용하고자 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적조생물에서 에탄올 추출에 성공하고 이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이는 부영양화, 해수의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적조가 광역적으로 고밀도로 발생하고 있어, 황토 이외의 방제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적조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착안하였다. 그동안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에서 분비하는 점질 물질은 70% 이상이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단백질, 아미노산 등 기타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고, 항바이러스성, 항알켄고성, Mycosporin-like amino acid(기능성 UV-A 차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적조생물이 분비하는 점질물질은 매우 뛰어난 응집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1단계 연구결과에 힘입어 본 연구의 실용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발생한 적조를 신속히 채취하여 1차 처리할 수 있는 적조포집 시스템을 2단계로 개발하고 동시에 적조생물로부터 에탄올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 창원시-한국전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협약서 체결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 자금 도시'를 만들고

자 기초자치단체와 국책연구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특히 북면 신도시조성지역 중 선전된 지역에 대해 내년 9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급단지 조성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행정적 지원을, 한국전기연구원은 기술개발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연구원은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개발과 보급 관련 인력·정책 교류 ▲환경친화형 북면 신도시 조성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개발과 적용 ▲신재생 에너지와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관련 기업의 신도시 개발사업 유치 ▲이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정보,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합의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책연구사업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창원시가 의뢰한 조사 용역도 오는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 가정용 태양광 발전율비슷한 소규모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 등)로 생산한 전기를 계통전력(한전)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전력 소비자까지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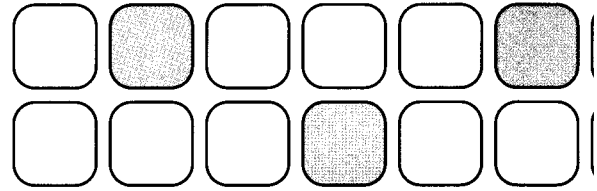
###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테마·실증연구단지 조성공사 발주

전라북도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국내 최초의 복합실증 연구단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공사'를 총사업비 1,194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공사기간 24개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발주되는 공사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실증연구단지 7개동과 테마파크, 연구·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린에너지산업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안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타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단지(830ha)의 전초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내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 의뢰 기관인 조달청에 국제입찰대상인 건설공사에 전라북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40%이상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공사는 지역업체가 49%이상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VD RADAR



순수SW기업이 투자... SW 협동화 벤처타워 전국 첫 대구에 건립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소프트웨어(SW) 협동화 벤처타워'가 건립된다. 한국 소프트웨어개발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출자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유등단지 입구에 '소프트웨어벤처타워'를 건립하기로 했다. SW벤처타워는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천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10년 3월 준공예정인 SW벤처타워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원사는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받아 입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협동화 방식의 집적시설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조합 관계자가 전했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일부는 대구시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는 순수 SW기업들만의 투자로 공사가 진행된다.

## 강원도, 플라즈마 응용산업의 향후 방안 모색을 위한 강원 플라즈마 산업포럼 개최

강원도와 (재)강원테크노파크는 독일 프라운호퍼 IST(Institute For Surface Engineering and Thin film) 부소장 볼프강 디(Wolfgang Diehl)를 초청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한 신소재 기술'을 주제로 '제4회 플라즈마 산업포럼'을 평창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강원도 산업경제국장(김상표), 철원군수(정호조)를 비롯한, KAPPA 물리기술연구소,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대 핵융합로공학실험연구센터(ERC) 등 플라즈마 응용산업 관련 연구소 및 국내 관련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외 관련 기술의 개발현황과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강원도 플라즈마 응용산업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최된 포럼은 강원도 플라즈마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신소재 기술"을 주제로 현장 중심의 플라즈마 응용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 경기도시공사, 2008 신·재생에너지 설명회 개최

경기도시공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적용활성화 정책 및 녹색경기 프로젝트 시행에 적극부응하기 위해 특집으로 '2008 신·재생에너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신기술 설명회를,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특집으로 계획하여 신·재생에

너지 보유 업체에게는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기여함은 물론, 공직직원들의 새로운 기술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2회의 신기술(제품) 설명회 개최를 공사와 관련된 분야와 연계하여 특집으로 기획하고, 각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장려함은 물론, 정부 정책활성화 및 경기도 시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친실리콘밸리·반아웃소싱... 미국 IT의 변화예상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의 '열풍'에서 보듯, 미국 정부의 교체는 역사상 세계 IT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기가 돼 왔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 '블랙베리(blackberry)' 스마트폰을 휴대했으며 310만 명의 인터넷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고, 모금 활동에 이메일을 적극 활용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내세운 미국 IT 산업의 청사진을 보면 친(親) 실리콘밸리, 반(反)일자리 유출, 친환경(그린) 기술 패권 장악이 그 핵심이다.

오바마가 가장 먼저 내건 IT 정책은 '최고기술담당(CTO)' 신설이다. 국가의 기술을 진작시킬 최고 책임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고기술담당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사인데, 여기엔 실리콘밸리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정책은 연구개발(R&D) 집중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1년부터 R&D 세금 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오바마는 이 법안을 영구화해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R&D 투자가 미국 내에서 집행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초고속인터넷의 확대다. 미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중 15위로 한국·일본·핀란드를 비롯한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 다. 시장이 과점돼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영토가 넓어망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기존 IT 산업 외에, 친환경 기술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연방 정부가 직접 펀드를 조성해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벤처 캐피탈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자극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며 2009년에는 보다 많은 우리 벤처가 세계속에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